



호텔같은 아파트를 짓는다

롯데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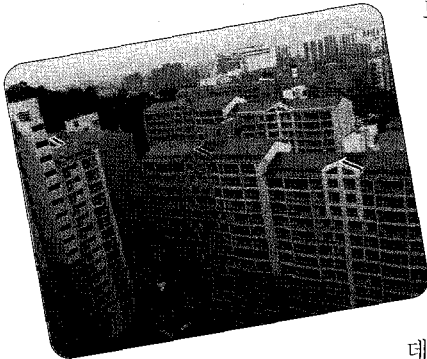
롯데건설은 도로, 교량, 터널, 항만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 호텔, 쇼핑센터 및 고급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축공사 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과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국내 초우량 종합건설회사이다.

1959년 창립한 이후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하는 롯데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도로공사, 일본 니가타 월드컵 경기장, 인천 신공항 고속도로 방화대교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함으로써 국내외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도시형 프리미엄 아파트 '캐슬'과 자연친화적 환경아파트 '낙천대' 공급을 통해 고급 아파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기존의 토목, 건축부문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익성을 기초로 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 Turn-key 공사, 플랜트 공사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초일류 건설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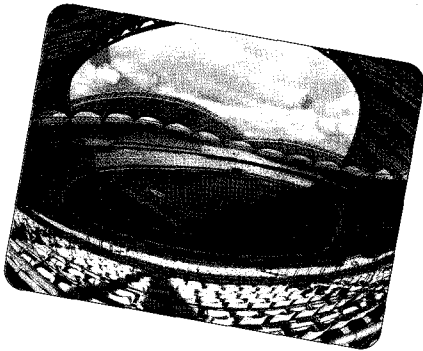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롯데캐슬

성(城)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다. 남성적, 귀족적, 고풍스러움 등 아마도 누구나 한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 보았을 것이다.



롯데건설은 성이 갖고 있는 이런 긍정적 이미지들을 아파트 브랜드에 적용해 1999년 업계 최초로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를 내놓았다. 캐슬의 첫 사업이었던 '롯데캐슬 84'에서 지난달 서울5차 동시분양에서 큰 인기를 끈 '롯데캐슬 프레미어'에 이르기까지 '캐슬'은 내놓은 단지마다 소위 대박을 터뜨리며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의 대명사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누구나 최고의 주거공간으로 성을 꼽듯이 누구나 한번쯤은 살아보기를 선망하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롯데건설의 의도가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매료시켰던 것이다.



'롯데캐슬' (Castle)은 '도시형 고급 아파트'를 기본 컨셉으로 최고의 마감재와 롯데만의 독특한 설계로써 시공된다. "호텔을 짓는다고 생각들 하시오!"라는 롯데건설의 광고문구처럼 호텔을 지어본 노하우를 반영해 여타 고급 아파트와 차별화를 기했다.

롯데건설의 프리미엄 아파트 '롯데캐슬'은 성이 주는 느낌인 중후함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한다. 아파트 저층부 외벽을 화강석으로 시공한다든지 단지내에 공원 같은 조경시설을 갖추기도 한다.



아파트 현관을 대리석으로 시공해 마치 성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도록 한것도 성이라는 이미지 컨셉화의 연장이다. 많이 짓지는 않지만 최고만을 짓겠다는 롯데건설만의 고집이 현재 롯데캐슬을 국내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등극하게 한 저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올해를 도약의 해로 삼을터...

롯데건설은 2004년을 초우량 건설업체로 발돋움하는 도약의 해로 선포했다. 각종 주택, 부동산 정책 등 내외의 어려움을 극복

하고 국내 5위권 건설업체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2004년 수주 목표 4조 2천억원, 매출 2조 5천억원, 주택공급 2만가구(서울에 4,700가구, 광역시에 1만 1,600가구)의 경영계획을 발표했다. 수주는 지난해와 같은 4조 원선을 유지해 안정적 사업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며 매출을 작년에 비해 24%(2003년 2조 2천억원) 주택공급은 100%(2003년 8,800가구)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도시형 첨단 인텔리전트 아파트, 자연 친화적 환경 아파트, 전원형 아파트 등 지역적 특색에 맞춰 특화시킬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기존 '캐슬'과 '낙천대'가 갖고 있는 고품스럽고 자연친화적인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강화는 물론, 첨단 홈 네트워킹 시스템, 사이버 도서관, 홈오트메이션 시스템 등을 통해 최첨단 아파트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특히 롯데건설은 산소방, 황토방, 참숯 조배지, 자동환기 및 정수 시스템 등으로 최근 붐이 이는 웰빙(Well-Being)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주방을 남향에 배치한다거나 비교적 인기가 덜한 1층 및 최상층에 특화 디자인을 선보이는 등 신평면 개발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가변성 벽채로 실내 공간구성을 다양화 시키고 추후 리노베이션이 가능한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2004년은 최근 2~3년새 분양한 2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입주에 들어가는 시기로 입주고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LSP(Lady's Service Part : 여성 고객센터 전담반), QCP(Quality Control Part : 품질관리 전담반)를 본격 가동함은 물론 Happy Call(소비자 불만접수 즉시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치하는 신개념 전화응대 고객 서비스)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만족을 기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SOC, 플랜트 사업부문을 강화해 안정적 수익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Turn-key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 수주에 역점을 둔다는 전략이다. 또한 해외사업을 확대해 일본,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방글라데시 등지로도 적극 진출할 예정이다.

